

해외의약뉴스

비타민D 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개요

최근 Medicine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5 히드록시 비타민D 혹은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수치가 낮은 환자들은 정상수치인 환자들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비타민D, 비알코올성 지방간, 25 히드록시 비타민D,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이하 NAFLD)은 알코올 남용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아닌 간에 지방이 과다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인 25%는 NAFLD 영향을 받는다. 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에는 과체중,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높은 수치, 급격한 체중 감소, 나쁜 식습관이 있으나 환자들은 이러한 위험인자 없이도 NAFLD가 발생할 수 있다.

NAFLD는 보통 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만약 환자가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지방간염(steatohepatitis)과 간경화(cirrhosis)와 같은 더 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이외에 NAFLD의 승인된 치료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Medicine저널에 게재된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에서는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NAFLD환자들 사이에서 비타민D 수치와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sex hormone-binding globulin, 이하 SHBG)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대사성질환(metabolic disease)에서의 SHBG역할과 비타민D 수치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NAFLD환자들은 보통 25 히드록시 비타민D(25-hydroxy-vitaminD, 이하 25(OH)D)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핍증은 뼈 건강과 면역기능이 최적화되지 못한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SHBG는 혈청스테로이드전달단백질(serum-steroid transporting protein)로 이 수치가 낮으면 온 몸에 작용하는 성호르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는 SHBG 수치가 염증, 당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연구진은 16개지역 환자들의 25(OH)D와 SHBG 수치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환자들은 NAFLD 유

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25(OH)D 혹은 SHBG 수치가 낮은 환자들은 정상수치인 환자에 비해 NAFLD(경증-중증도-중증, mild and moderate-severe) 위험이 더 높았다. 25(OH)D와 SHBG의 낮은 수치에 대한 연관성은 중증도, 중증 NAFLD 환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이,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 복부비만, 당뇨, 지질수치와는 상관이 없었다.

현재 NAFLD를 예방하기 위해 25(OH)D 보충제를 권하지는 않으며, 연구저자는 향후 25(OH)D, SHBG 수치와 NAFLD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원문정보 ■

<http://www.pharmacytimes.com/resource-centers/vitamins-supplements/low-vitamin-d-may-increase-risk-of-nonalcoholic-fatty-liver-disease>